여성 운동론 제1권

글 순 서

●여성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1. 들어가며 1
2.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1
3. 남한의 여성문제 2
4. 여성운동의 이념, 현 위치와 방향성 3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6
1.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6
1)여학생운동의 이념 7
2)여학생운동의 과제 8
2.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8
1)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8
2)여성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 12
3. 여학생운동의 현 수준과 이후 방향성 13
1)여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 13
2)대중투쟁의 계획성과 결합력 14
3)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고자하는 주체의 활동수준 14

●여학운의 사상운동의 측면에서 16
1. 변화하는 여학우상 16
2. 여학운 일꾼의 자기 혁신 17
3. 핵심간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7

(여학운)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KPI-3924지

396.1998.

여성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들어가며
2.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3. 남한의 여성문제
4. 여성운동의 이념, 현 위치와 방향성

1. 들어가며

여성운동, 학생운동, 여학생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운동이란 무엇인가. 운동가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기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과 동료가 나아갈 길인가 하는 점이다.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식적, 상식적인 삶 속에서 세속적인 것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내용, 본질을 깨닫고 터득함으로써, 즉 지식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가면서 모범을 창출하여 동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운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현상의 과제,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과 과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여성운동은 성차별문제. 이것은 현상, 형식이다. 현상, 형식보다는 내용, 본질의 파악이 더 중요하다. 즉 성차별을 없애자, 이것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성의 의존적 삶에서 벗어나 자주적 삶을 실현, 고양시키는 것. 이것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내용, 본질인 것이다.

여성문제란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즉,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는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세상 문제를 의미한다. 여성운동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억압과 모순을 타파하고 여성을 자주적인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남녀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운동으로 이해하던 편향을 벗어나 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은 그때까지의 어용적이었던 여성운동과 분리의 선을 긋고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자기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이념을 여성운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도 전체 변혁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도가 연이어 나타났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의 해결을 여성이 존재하는 사회 현실의 변화를 더불어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여성 자주화의 사상과 실천적으로도 광범위한 여성들이 사회 모순에 눈을 뜨고 투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은 여성 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뚜렷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 운동은 이념적, 실천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성문제의 발생원인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가지 상이한 견해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여성문제가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 즉, 생물학적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예를 들면 여성의 근력 강화, 동성

연애 등) 으로 보고 [급진주의 여성운동론] 또, 어떤 사람은 남녀 차별의 관습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법과 제도 변화만을 해결 대안으로 내놓기도 한다. [자유주의 여성운동론] 또, 여성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 역사적 문제로 파악하여 사회 변혁 운동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도 한다. [맑스주의 여성운동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가부장제라는 성차별 구조가 이중 체계로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여성 운동론]

이상에서 여성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해결방도와 주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옳게 정립하는 것은 여성운동을 편향에 빠지지 않고 곧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문제를 옳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그 자체만 고립적으로 파악해서는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며 다른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자리매김하여 보았을 때에만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을 외쳤던 여러형태의 여성운동이 있었지만, 여성운동의 당파성을 가름하는 것은 바로 성 모순과 사회 전체적 모순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 역사에서 우리는 전체 변혁의 과제를 도외시한 여성운동이 반동화의 길에 빠지게 되는 예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 남한의 여성문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어떤 세력에 의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혀내보자. 타도대상과 목표를 뚜렷이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자기의 이념성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남한에서의 여성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분단의 현실 곳곳에서 다각도로 나타난다.

첫째, 여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상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능이며,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식민지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제국주의와 일부 매판 세력에 독점되어 있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민중들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게 되며 민중들은 변혁의지를 가지고 의식화, 조직화되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끊임없이 저지하려 하며, 민중들에 대한 분할 통치, 분열정책의 일 형태로 남녀 분열정책을 쓰고 있다. 현상적인 남녀 차이를 이용하여 본질적인 계급간의 모순 구조를 은폐하려 한다든가, 남성들의 권위 의식을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억압을 행하는 것 등은 종종 있어 왔던 사례들이다. 또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다. '여자가 무슨?..' '여자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논리를 법제도로, 교육으로, 사회관습으로 심어 나가면서 여성들을 적극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인간이 아닌 온순하고 소극적인 인간으로 길들여 내는 것이다. 인구의 반이 잠잠해있다면 지배자들이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용이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차별 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 속에서 2중 3중으로 착취받고 잇다. 식민지 남한 경제 구조는 심한 기형성과 종속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서 대다수 여성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은 식민지 경제의 부담위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모순을 전가받고 있다. 많은 민중 여성들에게 노동의 문제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조직'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사 노동은 아무런 사회적 댓가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해내야 한다.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헐값에 여성노동력을 구입하게 되고 여성들의 저임금은 전체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모성은 여성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단순직, 임시직으로 직종을 크게 제한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는 여성 노동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있다.

세째로, 여성들은 양키저질문화, 향락문화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는 사회구조의 반영이다. 또한 문화는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사회구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문화에도 계급적 성격이 투영되게 된다. 남한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 양키저질문화, 향락문화가 유입되어 민중들의 건강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일차적이고 감각적인 문화로 민중들의 의식을 호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성이 하나의 상품으로 되어 변절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상품화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여성들은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양상은 우리생활 깊숙이까지 침투하여 건강한 인간관계에 질곡으로 되고 때로는 폭력적인 양상까지도 띠게 된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남한 여성 중 숫적으로 작다고 할 수 없는 100만이 넘는 매춘 여성이다. 계속된 외세의 성침탈 속에서 도입, 번져간 매매춘은 초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이다. 주한 미군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던 AIDS, 포르노, 마약 등의 범람은 외세 문화가 어떻게 남한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예다.

네째로, 분단과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유린당했다.

전쟁상황에서 가장 피해받는 계층은 청년과 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단과 전쟁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분단과 전쟁의 상황에서 여성을 유린했던 적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4. 여성운동의 이념, 현 위치와 방향성

여성운동은 여성을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 여성운동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운동의 주체에 의해 개념 규정을 하게 된다. 여성 독자적인 이해와 요구를 내걸지 않았더라도 여성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와 노력을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여성 이론의 성과에 의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여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성운동은 사회변혁운동으로 자리매김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주적 주체로 전화하는 과정에 대한 사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여성문제는 전체 사회변혁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는 편향을 겪기도 했다.

사회적 운동은 인간 실천의 합법칙성을 가진다. 민중의 현실적 처지와 인간의 자주성은 실천을 필연화시킨다. 그러나, 이 필연성 속에는 인간의 자주성을 고양시키고 이끌어내기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여성 주체 스스로의 추동력이 없이 운동은 존재할 수 없다. 즉, 여성의 자주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높이고 고양시키는 관점에서 운동의 전 과정을 배치하고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구현해 낼 때만이 운동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 자주화 운동'으로 곧게 전진해 갈 수 있다. 이전에는 여성의 자주성에 대한 신뢰와 자주성 실현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성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 확고히 의거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회 제도의 교체로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우라든가 혹은 전체 경제 발전만을 우선시하면서 당장의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위하여 여성들을 가정에 붙잡으려고 했던 경우가 진보적 사회운동 속에서도 나타났다.

광범위한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 또한 역사의 주체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여성자주화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이며, 역사발전을 주체의 힘으로 끌어당겨 이끌어 나가는 운동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자주화운동이며 이는 궁극적인 인간해방의 이념과 일치한다. 여성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은 인류가 줄기차게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며 혁명의 매 시기마다 여성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여성 운동은 사회 속에서 남녀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를 없애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인 여성이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이는 민중정권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과업이다.

현 단계 식민지상황에서는 여성운동은 제국주의에 의한 여성억압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에 자기의 일차적인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제국주의는 현 시기 남한여성의 억압과 모순의 주요한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자주적 주체로 서고자 하는 움직임을 제국주의자들은 각종의 수단을 동원하여 막고 있으며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질서는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직접적인 모순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이후 건설될 민족자주정권에서만이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정부는 민중들의 진보적 움직임을 우호적 입장에서 지지 지원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정권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자주적 움직임과 사회적 존재로의 자기 실현 역시 독재 정권하에서는 온존히 보장될 수 없으며 민중에 의거한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어야만이 여성들이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위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노력이 결합되어 이후 보다 더 높은 혁명단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인적, 물적인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즉 현 시기 남한의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을 자기의 선차적인 과제로 가지게 되며 이는 여성해방을 가능케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에는 실천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분리의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전체 변혁운동, 당면한 높은 수준의 정치투쟁에 여성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여성들의 생존권 지원 투쟁, 법 제도 개선의 낮은 수준의 투쟁이 양극화되어 진행되었다. 즉, 여성운동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가지는 독자적 내용 : 여성억압을 식민지 사회구조와 연결시켜 폭로해 내려는 투쟁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이 발전하면서 각 부분운동들은 자기의 내용성 속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성을 결합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여성운동 또한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을 자기의 내용으로 담아내려는 시도를 해야할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으로 여성운동을 규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성운동의 동력과 대상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에는 성모순이라는 범주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설정되어 마치

사회 속에서 보다 규정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관계를 둘러싸고형성되는 계급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여성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운동의 동력을 생각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경향도 있었다. 우리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범여성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는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 시기 남한 여성운동의 동력에는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이 되는 민중여성을 주력군으로 하는 광범위한 여성대중들이 망라될 것이다. 또한 남한여성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매판세력(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된다)을 여성운동의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민지지배질서를 청산하고 다수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현 단계 혁명운동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야만이 이후 사회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시키지 않고, 다수에 의해 건설되고 움직여 나가는 사회로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여성을 위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성보호와 사회전반에 걸친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조건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1)여학생운동의 이념
 2)여학생운동의 과제
2.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1)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2)여성운동의 선도부대로서의 여학생운동
3. 여학생운동의 현 수준과 이후 방향성
 1)여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
 2)대중투쟁의 계획성과 결합력
 3)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활동수준

1.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여학생 운동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을 하나하나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학생운동의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여대생의 위치는 남한 여성 일반의 사회적 위치와 그 맥을 같이 하며, 덧붙여 청년학도로서의 존재적 본질성을 갖는다. 남한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매판세력에 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소외와 법적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미.일 독점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경제구조속에서 세계제일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략, 우민화정책인 제국주의의 문화침탈에 의하여 퇴폐, 향락, 폭력의 사회분위기가 만연함으로써 여성들은 성상품화,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 여성의 처지는 여대생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로, 여대생은 식민지 근로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기층민중여성들에 비하여 특권의식을 가지며, 결혼을 통하여 계층상승을 꿈꾸게 된다. 여대생의 이러한 허위의식은 청년학생 본연의 임무인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회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된다. 민족의 삶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지배자의 의도대로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여대생은 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의식을 주입 받고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 학문활동, 자치활동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원내에서의 남성위주의 문화 풍토, 공간들에 의해 부채질되기도 한다.

세째로, 여대생은 남한 여성이 당하는 경제적 착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진출에서부터 여대생을 좌절시킨다. 대학을 상품화시키려는 사학과 자본의 논리와 예비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급증을 통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통제를 기도하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한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 여성노동착취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여대생에게는 더

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대생은 그 존재로부터 해방의 동력 또한 갖고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계급성을 갖지 않기에 경제적 토대가 자신의 위치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현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학문을 통한 진리탐구 열정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갖는 무한한 사회변혁의 원동력으로서 위치지어진다. 여대생 또한 청년학생의 내재적 본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대생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억압으로부터 희생된 문제이므로 이 억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사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다시말해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활동"이라 하겠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 내부의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여성이면서 청년 학생으로의 보편적 모습을 담아야 하는 여학생들이 주체로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의 주체라는 인식의 강화속에서 청년 학생으로서 제반 사회운동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선도적 이념성, 실천력을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속에서 여학생 운동은 필요하며 학생운동 속에서 소극적, 개인적 여학생의 모습을 극복하고 운동의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 여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이들의 의식화, 조직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학생 자치기구는 시급히 요청된다. 즉 위에서 본 여학생의 존재적 특성 속에서 그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 그들의 정서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모든 사업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전체운동의 관점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며 대중 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 운동의 지도체로서 과학적 이념과 실천을 통일적으로 구현시키며 전체 여성운동의 선봉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여야 한다. 그것은 여성운동의 정치 사상적 지도및 기혼여성 운동을 지원하고 사회운동내의 여성운동과 연대를 꾀하고 대중적 투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여성운동 공간으로의 여성활동가 배출이 요구되며 이 자치기구의 공간속에서 해결되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 속에서 이들 여학생의 정치 의식화, 조직화는 소모임을 활성화시켜 진보적 이념을 전파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의 창출(공동체감의 형성), 여성으로서의 모든 억압, 극복 상황에 대한 과학적 지속적 선전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여학생운동의 주체는 여성이면서 학생인 바로 여학우대중임은 당연하다. 이러한 여학생운동의 존재에 기반하여 여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학우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해방의 험난한 길에 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

이제 여학생운동은 단지 여학우들의 복지개선에만 치중하는 편향이나 소수가 사회전체에서 제기되는 정치사안을 가지고 선도적 투쟁을 벌여 나가는 편향을 극복하고 진정 여학우들의 삶 속에 기반하여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자주성을 고양하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1)여학생운동의 이념

여학생운동은 신식민지 여학도로서 조국의 민주화와 해방을 위해 헌신 복무하는 애국운동이며 여

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제 조건의 타파를 위해 모든 여학생이 단결 투쟁하는 변혁운동이다. 결국 여학생운동은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진정한 인간해방을 내용으로한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과정속에서 여학생 하나하나가 육화된 모습을 깨고 주체로 나서 자기 권리를 쟁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부의 역할일 것이며 이것이 올바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억압된 현실은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간부는 모든 여학생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이 참여하여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주화된 여학생의 모습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2)여학생운동의 과제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의 위치는 여성해방의 도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조건을 부여해주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옳게 이해한다면 잠재된 혁명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결국 여학생운동은 첫째, 남녀평등의 완전한 실현과 차별을 조장하는 지배세력을 타도함으로써 이 사회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것, 둘째, 학생으로서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학문, 사상, 이론, 기술의 체득과 이로부터 생산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셋째, 학원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식과 구조의 철폐를 통한 민주화의 실현, 이 세가지를 자기 지향으로 하는 운동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여학생 스스로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건설을 통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운동이다. 또한 학생부문운동의 하나로서 학생운동의 대중화, 강화를 이루어내며, 여성운동의 선도주자로서 여성운동을 질높게 교양시켜내며 전체 구국운동에 복무해 나가는 운동이다. 그러나 "일감은 객관에서, 활동은 주체의 준비정도에서" 찾아야 하기에 당면의 여학생대표기구는 주체를 조직함에 가장 주목함으로서 이러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체를 꾸리는 사업은 그 대표체가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따라, 얼마나 올바른 내용으로 지도하려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조직화의 관점은 철저히 여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올바른 여학생활동을 고민한 결과여야 할 것이다.

2.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우리가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려함은 여학생운동의 과제가 각 사회변혁운동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지배권력의 타도에 있다고 했을 때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이 상호 지원 연대하여야만 한다는 명제에 의거함이다. 이 글에서는 여학생운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청년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①학생부문운동이란 무엇인가?

학생부문운동이란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의 또 다른 처지가 중첩되면서 또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운동이다.

그러나 조직화의 형태와 경로에 주목해 보면 여학생운동과 여타 다른 부문운동과는 일정하게 다르다. 즉, 문화, 종교, 언론인 등은 그 당사자의 결의에 의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처지고, 일단 결의하여 문화예술 동아리에 가입한다거나 대학신문사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는 문화인, 종교인,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자각하고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지만, 일단 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일반의 청년 학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사회적 처지는 자신이 얻겠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버리겠다고 하여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평생동안 규정하는 문제이며, 더군다나 '여성'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의 담지자 모두가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학우 대중 스스로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조직형태를 원하게 되며 자생적으로 이러한 조직형태를 만들어 나가게된다. 이는 바로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의 형태이며, 이는 여학생대중이 있는 곳 어디에나 건설되게 되는 것이다.

부문운동조직은 단위 학생회의 강화, 골간 체계내용의 풍부화로 귀결되는 계열운동조직과는 달리 이후에 건설될 통일전선체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를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부문운동 자체가 학우들의 활동을 학생회 골간의 정치투쟁사업, 일상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낼 수 있는 내용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즉 전체운동 속에서 그 부문운동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강령적 요구로서 밝혀내고 정식화하여 자기조직이 책임지고 잇는 학우들이 힘있게 학생회골간 사업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운동속에서 학생계열, 부문운동이 유기적으로 복무하며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통일적인 이해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열운동과 부문운동의 상대적인 독자적 영역을 주체적으로 확보 개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②여학생운동과 학생운동과의 관계의 오류와 극복

청년학생운동은 한국 사회에 있어 가장 튼튼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다. 청년학생의 순수성과 진보성, 단결성이라는 애국적 실천의 토대가 되었고 이로인해 한국사회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궐기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학생운동의 기본적 선도성은 여학생의 진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년학생운동은 다수의 여학생의 참여를 유도해내기 어려운 한계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제도교육과 사회적 차별로 육화된 여학생의 소극성이나 개별성에 근거해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조직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여학생운동은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발생되며 이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노력임과 동시에 운동의 다양하고 풍부한 발전의 한 단면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학생운동의 본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청년학생운동과의 관계속에서 노정된 오류점과 그 극복 전망을 서술해보자.

첫째,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의 한 부분임을 말로는 인정했으되 실천속에서 간과한 점

이는 일차적으로 간부들간의 결합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여성모순에 대한 일반적 몰이해는 어쩌면 그간의 교육풍토속에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의 관점에서 설득하고 여학생의 진출속에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적 무시나 소외로 이해하면서 배타적 경쟁적 관점에서 일을 했던 여학생활동가들과 여성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못했던 청년학생운동가들의 상호 불신은 여학생 대중에 대한 공동사업을 모색하기 보다는 상대적 독자성이라는 미명하에 통일적이지 못한 사업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선 여학생활동간부와 청년학생지도부간의 상호이해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여학생간부들로부터 힘차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상 논쟁이 계속되면서 여대중과의 결합보다는 구조논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

양자의 위상은 실천속에서 검증될 때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의 부족은 계속해서 구조속에서의 권력다툼으로 외화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쟁이 대중의 단결된 힘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마치 개인의 인정문제로 생각한 것은 매우 불순한 것이었다고 반성해야할 것이다.

기간의 오류로 크게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이라는 집단이 청년학생이라는 특성과 여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통일적으로 구획될 전망이 명확하다.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통일을 위해 여학생간부들이 해야할 일들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는 여학생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청년학생의 간부중 한사람으로서의 의미도 되며 이러한 이유로 청년학생운동지도부의 지도에 충실히 따르는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 사업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있다면 이것은 여학생의 단결된 실천으로 설득해 들어가려 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급한 결론속에서 여학생에 대한 멸시주의에 빠지기 쉬움을 경험속에서 꼭 짚고 넘어가려 한다.

③학생운동을 대중화. 강화시키는 여학생운동의 실천적 성과들

실제로 어떻게 여학생운동이 학생운동을 강화시키는가 보자.

첫째,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청년학생들은 자신의 상이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 전공별 또는 문화, 종교, 여성 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다. 이 다양한 관심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여 학우들을 의식화시키고 올바른 조직틀로 조직화해낼 것인가가 우리의 주관심사이다. 현재의 학생회 골간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올바른 방침을 내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학우대중들의 다종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고 자신이 자주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학생회골간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학생회골간을 풍부화시키고자 한다. 일반 학생회 활동의 의지는 그리 높지 않지만 여성운동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학우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 이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을 만들고 탁아자원봉사 활동 등 이들의 요구에 맞는 일상사업, 투쟁사업들을 해내며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그것을 전체운동에 대한 의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흔히 여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우들은 다른 장에 있는 학우들보다 비교적 투쟁력이 떨어진다. 기층 여학생모임으로 내려가 보아도 그 모임의 정치의식수준이 일정 보장되는 곳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내가 여학생운동을 한다고 하여도 청년학생운동의 강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전체운동 속에서 올바르게 잡아내어, 여학우들이 청년여학생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근거하여 투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여학생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로서 투쟁을 벌이고 이로부터 청년학생운동의 모범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노동자가족, 도시빈민여성, 민가협 어머님 등 다른 계급 계층 여성들의 경우를 보자. 이들은 여학생들보다 정치의식수준이 낮고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낮으며, 동일한 계급계층 남성들보다 보통은 정치의식이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 적들과 맞서면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타협없이 끈질기게 싸워나가는 모범을 보여준다. 그 투쟁이 여성의 독자적인 이해

와 요구를 내걸지 않았다하더라도, 의존적이고 예속적인 삶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외세와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삶과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여성의 자주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전제조건-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과정이다. 이들의 투쟁은 바로 여성의 자주성을 높이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운동, 즉 여성운동 그 자체이다. 이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은 각 계급계층별 투쟁의 기폭제가 되고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계층의 투쟁에서 승리를 전취해내는 힘이 되며, 그만큼 여성들은 민족민주운동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들의 투쟁의 힘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수천년동안 억압받아온 수난의 역사, 그 속에서 현재는 미제놈들과 매판파쇼무리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음을 깨달은 데서 나오는 분노와, 그만큼 심한 억압에 대응하여 터져나오는 저항의 힘이다. 이 저항의 힘은 극소수 매판여성을 제외하고는 남한 여성 모두에게 심어져 있다.

다시 우리의 논의의 촛점인 여학생에게로 돌아와 보자. 일반적인 청년학생들은 여러 허위의식에 싸여있지만, 여학생은 여성이라는 것을 악용한 허위의식에 또 한껍질 싸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히게 되면, 식민지 여성으로서 자신도 어차피 억압받고 유린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청년학생으로서 조국의 현실에 눈뜨게 된다. 여학생들은 청년학생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식민지 여성이 보여주는 그 힘을 가지고 청년학생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물론 여학생들이 아직까지 민중여성들처럼 청년학생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지는 못하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과 동일한 여성,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할 줄 알았던 여성이 구국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민중여성과의 연대성을 획득해 나간다면, 그들을 따라 배우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민중여성들과의 연대성을 높여나가며 민중여성들의 단결투쟁, 결사항전투쟁의 모범을 배우고 이것이 참된 조국의 딸의 모습임을 여학우들에게 심어준다면, 여학생들은 틀림없이 청년학생운동 속에서 단결투쟁의 모범으로 설 수 있다.

청년학생은 노동계급으로부터 투쟁의 완강성과 집단성을 배운다. 여학생들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민중여성들로부터 투쟁의 모범을 배우며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민중여성과의 연대 속에서 여성의 투쟁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과는 또 다르게 여학생은 대부분 양심적이고 남의 아픔을 내 것으로 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위의 많은 평범한 여학생들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비록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주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서명운동, 전교조후원, 탁아소활동 등에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고, 양심수와 구속자 구출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사업은 많은 여학생들을 투쟁에 동참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투쟁에 참여하는 다수의 여학생대중들은, 비록 높지는 않으나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투쟁의 최전선에 다른 학우들을 지지 엄호해낸다.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각 과의 여학생모임들이 총여학생회의 지도하에 통일적으로 하나의 실천을 결의하고 각 과에 그 투쟁을 제기한다면 이는 투쟁을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일으켜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학생들이 이러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내는 것은 투쟁의 상승시기에 있어서는 커다란 힘이 된다. 예를 들자면 87년 6월 당시 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한 최루탄 추방대회를 우리는 모범으로 말한다. 그당시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으로 인하여 정권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때, 폭력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정서를 포착하여 여성단체연합에서 '최루탄 추방'이라는 아주 낮고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투쟁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광범

한 국민들을 투쟁에 인입시키면서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대중적 공감대 속에서 폭투도 가능하였고 전경무장해제도 가능하였던 것이다. 88년 8.15투쟁 당시 의대생들의 통일진료반이 가졌던 혁명성을 상기해본다면, 교문투쟁시 조직적으로 돌깨고 물량운반하고 의료활동을 하는 여학우들의 활동이 결코 소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활동은 오히려 더 많은 여학우들을 투쟁에 인입시키고, 투쟁하는 학우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대중투쟁을 만들어내고자 하지만,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평범한 여학우들의 힘을 모아내는 대중투쟁의 전개는 사활의 문제이며, 이를 벌여낼 때만이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말로서가 아닌 실천으로서 입증될 것이다.

2)여성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

남한의 청년학생은 우리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해냈다. 시대추세에 민감하여 진보적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며, 민족적 자각이 높고 정의감이 강하여 높은 투쟁력을 발휘하는 청년학생은 구국운동에서 진보적 사상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청년학생운동은 높은 민족적 자각으로하여 전체구국운동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지향시키는 추진력이다.

이에 참가하여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여학우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학생이라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평가를 내려왔다. 물론 허위의식이 크기는 하지만, 여학생 역시 청년학생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민중여성들과의 연대성을 획득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투쟁성을 배운다면 40만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식민지 청년 여학생으로서의 자주적 존재로 변화발전할 것이다.

여학생들은 취업차별철폐싸움등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투쟁을 전체 여성의 문제를 인식한 속에서 벌이며, 전체 여성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실제적인 힘으로써 고무시켜 낸다. 또한 여학생들은 높은 정치의식에 기반하여 타 계급계층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그들과의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전체 여성운동이 당면 정치투쟁과 구국투쟁에도 밀접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에이즈 추방 투쟁등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투쟁에는 다양한 수준의 단체들이 참가하였지만, 여대협은 그 속에서 에이즈 문제를 미군의 문제와 연결시켜 제기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상승발전시켜내고자 하였다. 그 투쟁 자체에 대한 평가는 더욱 세밀히 이루어져야겠지만, 투쟁에 있어서 전체 구국운동의 관점, 반미자주화투쟁의 관점을 유지하고 투쟁을 상승발전시켜내려한 것은 여성운동에서 여대협의 지위와 역할이 어떠해야하는가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 여성운동은 고립분산적인 여성들의 존재현실을 극복할 대안과 그 속에서 대중적 내용성을 정립하지 못함으로서 조직화의 수준이 매우 낮고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상대적으로 조직화의 수준이 높은 여학생운동에 많은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운동에 요구되고 있는 현재적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그나마 조직되어 있는 여성운동의 핵심세력을 올바른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서 대오를 정비하는 것

둘째, 여성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여성의 진출을 내오는 것

세째, 자유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시즘으로 대별되고 있는 여성해방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올바른 이론을 정립하는 것

세가지 당면의 숙원과제는 올바른 여성운동가들의 양산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에 여학생운동은

여성운동의 이념성을 선전선동하고, 조직화하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반복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부여받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학생운동이 담보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적어보자.

첫째, 여학생대중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것

여대 총학생회와 남녀공학의 총여학생회, 여학생부는 명실공히 단결과 권익의 구심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여학생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헌신적으로 복무하자!

둘째, 올바른 여성해방이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

세째, 직업적 여성운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것

네째, 기층 여성,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혈연적으로 강화하여 타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빈민지역의 탁아소활동, 농촌활동중 여성농민반 운영, 여성단체 후원조직 결성등 무궁무진한 사업의 영역이 존재한다.

모든 과제가 당면한 1,2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여 여학생운동이 여성운동의 선도부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여학생운동의 현 수준과 이후 방향성

여학생운동의 현 수준-여대협을 중심으로-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여학생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정도, 대중투쟁의 계획성과 학우들과의 결합력, 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활동수준의 세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보자.

1)여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화란 여대중이 자신의 처지와 실정을 옳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의식화의 첫 출발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보다 체계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의식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즉, 여대생 자신의 자주성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화하여 억압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우리를 억압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하는가? 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수반해야만 해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여대중이 의식화된다 함은 '해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결의와 이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주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때, 학원에서의 의식화 정도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여대생은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집단성, 규율성이 부족하고 모든활동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취업문제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해정도가 아주 낮다.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의식화의 내용은 초보적이나마 느끼고 있는 생활상에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된다는 것과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자신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들과는 좀 구별되는 학우들로서 주로 여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과.단대에서 활동을 하는 학우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과학적 세계관을 확보하고자 하며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학우들이다. 그러나, 여성문제에 대한 인

식은 단결투쟁의 결의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을때, 이 학우들에게는 자신의 투쟁결의 수준에 맞게 여성문제 인식정도를 높여내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직접적인 대중활동 속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식화는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대중투쟁 속에서 결합되어야만 할 것이며, 연대투쟁의 발전 강화 속에서만 연대의식은 고양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식화만으론 부족하고 반드시 조직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조직화된 투쟁만이 지배자들이 강고하게 구축해 놓은 지배력에 항거할 힘을 갖게하며 나아가 운동의 결정적 승리를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여학생운동의 조직화 정도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각 단위는 아직 기본적인 회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소모임도 뚜렷한 자기 지향점이 없는 '친목도모'수준을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학생회에서 생산하는 정책이 여학우들과 결합하기 힘들고, 올바른 정책생산을 했다 할지라도 집행력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각 학교에서의 이러한 실정은 연대 단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연대 투쟁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여학생회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조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대중투쟁의 계획성과 결합력

지난 시기에 벌여왔던 투쟁들을 평가해보면 첫째, 조직강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준비된 투쟁을 벌여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요구되는 정치적 현안에 우연적으로 대응하거나 학생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비주체적으로 따라가는 문제를 말한다. 여대협이 벌여왔던 투쟁들이 일회적 투쟁 이후에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소진 상태에 빠져 버리는 상황을 볼 때 더욱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지금 시기는 관점은 있으나 구체적 방도를 못 내오는 시점)

둘째, 상층간부의 선도적 정치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정치투쟁위주라는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자 한다.

셋째, 아직까지 여학생운동의 독자적인 강령적 내용을 정식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학생운동이 어떤 투쟁을 벌여 내야할 지를 주체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확고히 틀어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끈질기고 힘있게 벌여 여학우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어넣어 자주적인 여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이되고 있는 취업문제의 경우, 어느 학교에서나 다 공약을 내걸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안도 갖지 못한 채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또한 전체 구국운동 속에서 여학생운동이 해야할 바를 넓은 시야로 찾아내고 그 속에서 여학우들의 투쟁의지를 모아내어, 여학우들의 정치의식과 투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3)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고자하는 주체의 활동수준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투쟁경험 부족은 전반적인 인식의 부재를 야기하며 투쟁지도부가 확고히 정립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여대증을 지도, 조직화 해야 할 간부조차도 능수능란한 전술구사와 집회, 가두투쟁 주도력, 선전선동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간부들의 투쟁 지도력을 키울 수 있게하는 조직적 훈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제기한 전반적인 문제를 어더한 방향하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학생운동의 전개양상에 있어서 조직화의 형태는 여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대중조직을 건설해내고 그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의 투쟁속에서 조직이 건설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도부는 대중투쟁을 위한 계획을 세심하게 내와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여학생운동 독자의 강령적 요구를 명확히 정식화해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파헤쳐 그러한 문제로부터 여학생대중이 촉구하는 총체적인 변혁의 지향점을 명확히하고 그 노정 속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해야하는가를 생산해냄으로써 가능해지며, 이런 작업들을 여학우대중의 실천투쟁 속에서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여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간부들이 하나의 일관된 사상체계로 통일하고 공통의 문제인식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운동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 , 이것이 집단적으로 논의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의식이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어버린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의 동료로부터 시작하여 전국단위의 운동주체들이 하나의 단일한 이념에 기초하여 여학생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토론을 조직화하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도 여대협에서도 이 원칙은 운동주체들의 주체다운 자각 속에서 관철되어져야할 것이며, 이렇게해야만 중앙의 지도력도 확보되고 기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순 서

●조직운동 측면에서 1
1. 들어가며 1
2. 여성대중조직의 위상과 역할 1
3.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2
<보론>총여학생회 회장단의 지위와 역할 및 전체조직간의 연관성 3
4. 연대조직에 관하여 4
1)서울지역 여학생운동과 서여대협의 역사 4
2)서여대협의 필요성과 그 역할 7
5. 단위조직에 관하여 8
1)단대 여학생회 8
2)과 소모임을 중심으로 9
6. 조직운동에서 드는 문제의식과 과제 13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15
1. 대중활동 평가 및 전망 15

여학생운동의 조직운동

1. 들어가며
2. 여성대중조직의 위상과 역할
3.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4. 연대조직에 관하여
  1)서울지역 여학생운동과 서여대협의 역사
  2)서여대협의 필요성과 그 역할
5. 단위조직에 관하여
  1)단대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2)과소모임을 중심으로
6. 조직운동에서 드는 문제의식과 과제

1. 들어가며

여성문제 해결의 주체는 여성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모순의 담지자인 여성들의 힘의 결집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투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조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여성운동의 역량강화도 이러한 조직화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여성운동이 전체변혁운동의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독자적 운동영역이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여성운동론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고, 이에 여성들의 독자적 조직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

여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 즉 학회, 써클, 여학생회 등은 모두 다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가는 조직체라 하겠다. 그러나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보다 목적의식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을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운동이 승리하는 관건은 다수의 대중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을 통해 적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일시에 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만이 아니라 운동의 주체인 다수의 대중이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후 지향해야할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위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2. 여성대중조직의 위상과 역할

여성착취의 물적토대인 '지배질서총체'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분할지배방식이며 이러한 지배체제는 지배계급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온존, 강화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여성의 억압착취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이 갖는 억압의 특수성을 통해서 일반적 변혁운동의 과제를 풀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운동조직의 근간이 여성대중조직이다.

여성대중조직이란 여성대중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변혁운동내의 각각의 부문운동속에서의 여성조직을 일컫는다. 그러면, 여성대중조직은 부문운동조직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는가?

첫째, 여성대중조직은 철저하게 부문운동의 방향성속에서 자기운동의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올바른 내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부문운동조직과 여성대중조직은 조직자체의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직력이 상호결합되어서만이 자기들의 통일되고 강력한 힘을 표출할 수 있다.

세째, 각각의 부문운동내의 여성대중조직들은 상호연대를 통한 공동의 투쟁을 지향하며 이때의 지향점은 여성문제의 본질을 이루는 총체적 계급지배질서에 대한 정치투쟁의 성격이다.

그러면 이러한 위상을 갖는 여성대중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성대중이 처해있는 억압과 착취의 내용에 따라 조직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타조직과의 관계 또한 탄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여성대중조직의 역할은 조직대상인 여성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대중의 계급적 기반과 변혁운동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으로 여성대중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첫번째는 여성대중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시행하면서 광범위한 여성대중을 인입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후 변혁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써의 여성운동을 지향해가는 여성운동가의 발굴이다. 세번째로는 활동속에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교육시키면서, 모든 여성대중들이 혁명화되고, 조직이 전투화되어 여성문제해결의 정치투쟁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학생회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여대생이 올바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억압된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추구열과 인간으로서의 자기회복을 위해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주체화와 함께 이 세계 절반이며 역사발전의 주체인 여성의 조직이 필요함과 같은 의미에서, 청년학생이자 여학생인 총여학생회의 의미가 설정된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대중들을 그 조직적 기반으로 한다. 학생이면서 여성이라는 공통의 계층적 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변혁지향적 성격을 갖는, 여학생들의 대표조직이자 자치조직이다. 즉 총학생회와 같은 역할을 부여 받으면서도, 남한 여대생의 특수환 상황속에서 그리고 여성운동의 과제속에서 부여받는 바가 일정정도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므로써, 그 존재의 필연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학생대중을 그들의 존재조건에 맞게, 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모순의 질과 형태에 맞게 교육, 조직하고 여학생의 이해에 기반한 투쟁과정을 통해서 여학생대중들이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자기모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추동하는 것이다.

둘째로, 대중적 기반이 제대로 꾸려져 있지 못하고 노동여성이 여성운동의 주력부대로 꾸려져 있지 못한 현재의 여성운동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중속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단련된 여성운동가를 발굴해 내야 한다.

셋째로, 총학생회와 유기적 연관속에서 남녀학우 대중 모두를 주인으로 하는 조직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의식화, 조직화의 정도를 높여서 총여와 총학의 전투화를 도모하며 이것으로 여성운동, 학생운동이 동시에 강화되어 이 사회 변혁운동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론〉

총여학생회 회장단의 지위와 역할 및 전체조직간의 연관성

회장단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제반 전체조직을 형성하는 대외사업 및 총여의 골간 체계를 관리하는 내부의 사업과 조직을 총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총여학생회장단의 가장 큰 지위와 역할은, 5천 연세 여성의 자주적 대중조직의 대표자이며, 총여학생회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꼽을 수 있겠다.

둘째, 총학생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이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대의원회 다음가는 실질적이고 상설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총여학생회장단은 2만연세 전체차원의 총학생회 사업을 의결하게되고, 부문, 계열조직으로서, 학생회 속에서 포괄되지 않은 여성계층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여 학생회 강화에 복무하게 된다.

셋째,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 협의회(및 전여대협)의 연세대학교 여학생 대표자로 참여하게 된다.

여대의 총학생회 남녀공학의 총여학생회 및 총학생회 집행부(여성부)로서 구성되는 여대협은 현재 **개 학교로 구성돼 있고, 서부지구에 *개 대학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또한 89년 축전투쟁의 성과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여학생 대표자협의회 건설준비위로 조직적 확대를 가하고 있으며 서총련 지역 및 지구별 편재와 동일하게 전국에 8개 지역의 대표로서 모임을 구성하고, 전여대협 건설을 투쟁의 과정속에서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대협은 여성이라는 계층적 공통성에 근거하여, 여학생의 공동사안을 협의하며 각 학교의 여학생 활동을 지원하고자 건설되었으며, 사회 제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여성의 힘을 통일, 집중시켜내어 "여성운동 대중화"와 "여성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여성조직의 대중적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협의체라는 조직적 한계속에서 커다란 힘을 내오기는 아직은 힘든 상태이여서 각 학교에 유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대협은 각 학교 여성조직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며 연대의 틀속에서 제기되는 사업은, 각 학교 실정에 근거해서 구현되어져야 한다.

넷째,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의 대의원 지위이다.

서총련은 40만 서울지역 청년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총학생회의 연합이며 직선으로 뽑힌 각 학교 대표자인 대의원이 운영하는 조직이다.

총여학생회장단이 대의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전체 청년학생 및 청년여학생의 이해와 요구의 대변자로써 기능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부문, 계열조직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충분하게 부분 계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러나, 부문계열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완전히 가능케 하는 것은 제반의 횡적인 구조(부문, 계열의 제반영역-서동련, 여대협, 종교인연합 등등)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서총련으로서의 발전적 전망을 갖게되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제반 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100만학도의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의 다양한 지향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서 될 것이다.

4. 연대조직에 관하여

1)서울지역 여학생운동과 서여대협의 역사

①87년 서여대협 건설 이전

우리 역사에서 '여학생'이란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한 지도 100여년이 다되어가고 일제와 미군정하에서 조선의 해방과 여성해방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싸웠던 여학생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민족적 입장에 서서 반제반봉건을 위해 싸웠던 여학생들의 운동 역시 다른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승만 독재 정권에게 말살당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강제로 지워져갔다.

여학생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여학생운동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청년여학생들의 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데 들어서면서 이전의 어용 여성운동을 뚫고 민주와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이 시작되었고, 청년여학생운동 역시 그러했다.

생존권을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서구여성해방이론 등이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웠고, 활발해진 청년학생운동이 여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높였다.

당시 여학생운동은 써클별로 여성문제를 공부하고(주로 이중체계론적 관점) 그 여학생들이 정치투쟁에도 참가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 아직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때여서 조직과 활동도 소수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수의 조직, 소수의 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84년 유화국면 이후 각 학교 총여학생회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총여학생회 건설과정은 대부분 학우들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기보다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대중적 토대는 매우 미약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당시 총여학생회 간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체계론적 관점으로는 여성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남학생간부들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녀대립이라는 인상까지도 주게 되었다.

각 학교에 총여학생회가 생겨나자 여학생운동이 비교적 일찍 시작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이지 못하지만 연대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연대활동을 투쟁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으로 벌어진 불매운동, 86년 권인숙씨 성고문 규탄투쟁을 함께하면서 여학생운동은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고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속에서 얻어진 것들, 곧 투쟁사업을 몇몇 학교가 모여서 함께 했을 때 성과가 남는다는 경험, 투쟁사업만큼은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87년 서여대협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②87년 서여대협 건설-89년

사회전체에 과학적, 자주적 사상이 널리 전파되어 우리 운동의 과제가 좌우편향을 극복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정당성이 폭발적인 대중투쟁 속에서 입증되어가면서, 여성운동 속에서도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따로 이루어야 할 일로 보았던 이중체계론이 점차 우리사회변혁과 여성해방과제를 통일시켜서 이해하는 과학적인 이론으로 바뀌어나갔다. 여학생운동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활동에서 찾으려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서여대협 차원에서 벌인 88년 AIDS추방운동과 매춘올림픽 반대운동, 89년 평양축전 참가투쟁은 이런 요구에서부터 준비되었고, 좀 더 많은 여학우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또한 대중화의 시급함을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여성학교를 열고 다양한 모임에서 여성문제를

공부하도록 하는 등 여학생대중에 대한 의식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문제 교양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니만큼, 교육에서 성차별-여성문제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기본교양이 주를 이루었다. 대중화를 위한 노력 속에서 과, 단대 단위 여학생모임도 비교적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되면서, 여학우들의 의식은 '여성문제가 있구나'하는 정도까지 높아졌다.

결국 이 시기는 서울지역 여학생운동이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문제 인식을 넓히고 대중조직기반을 키우는 데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의 관계를 바르게 위치지워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벗어던지지 못한 것도 역시 있었다. 이 한계는 학생운동 전체의 한계와도 잇닿아있다. 낡은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학생운동이 좀 더 대중에 근거하는 운동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첫번째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여성해방과 사회변혁의 통일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것,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변혁과 여성해방의 관계를 여성대중, 여학생대중의 삶 속에서 배우고 해명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이론은 한국사회현실에 발붙이기 시작했는데, 여성운동이론은 아직 그러지 못했고, 여학생운동에서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여성해방하면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생산노동 참여'라는 명제만 떠오를 뿐이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해방은 무엇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여학생운동이라면 여학생들이 자기 일로 느끼는 여성문제부터 대안있게 해결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사회변혁과의 통일성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 주변의 여성문제와 사회변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라는 조건과 간부들이 좀 더 대중에 근거해서 활동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편향이 쉬 사라지지 않았다.

가장 큰 편향은 정치투쟁에 급급해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치투쟁은 다수 여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아닌, 대중의 열의를 모으지 못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는데, 이런 정치투쟁에 급급해만 하는 것은 여학생회 사업이 몇몇 선진적인 여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대다수 여학생들은 대상화하게됨을 의미한다. 특히 89년에 선봉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상반기 동원식 투쟁 속에서 진행된 선봉대 사업은 소수만의 사업이 되고 말았다.

또 하나의 편향은 우선 여성문제로 여겨지는 것부터 제기하고 보자는 것이었다. 89년 하반기 취업차별 철폐싸움은 여학우 대다수의 요구를 운동으로 만들어냈다는 긍정성과 여학우 대중을 광범하게 장기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문제를 우리 사회변혁과 통일시켜 제기하지 못하고 사회변혁과는 별 관계없는 여성차별해소 문제로만 제기하여 남녀학생의 이해관계를 통일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체계론의 극복은 이론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내고 실천적인 변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의 관계를 여학생대중의 삶 속에서 해명하지 못한 한계는 편향뿐만 아니라 바른 시도에도 한계를 가져다 주었다. AIDS추방운동, 평양축전참가투쟁 등 여학생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 변화를 제기한 시도는 옳았지만. 싸움을 벌여놓고도 여성 독자의 요구와 반미, 통일 내용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 지 유연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이다. 여학우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천형태 역시 그냥 반미 통일 투쟁으로만 됨으로써 여학우들

의 참여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두번째로 꼽게 되는 문제는, 앞에서 든 어떤 편향, 어떤 한계가 있는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이 대중의 힘을 받지 못하고 소수 간부들의 결의만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편향된 사업, 내용이 불충분한 사업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중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과 떨어져 있으니 대중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힘을 찾아 볼 수 없고, 당연히 소수만의 사업이 되고 만다. 취업차별철폐투쟁이 '대중투쟁'으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모습은 여전히 간부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잘 되돌아 보아야 한다.

③90-91년

학우들의 여성문제 의식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 골간단위가 실제 명실상부한 주체로 된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여학생운동이 변화의 교류공간,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기 서여대협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90,91년 간부들은 이미 자주적 학생회 노선의 전파와 정착과 더불어서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 89년 하반기 취업차별철폐운동 이후 서여대협 차원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연대의식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여대협"사업 주체가 인적으로 단절되고 선배들로부터 경험을 이월받지 못하면서, 서여대협이 해온 그 성과적인 역할도, 대중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도 90-91년 4기, 5기 서여대협으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만 여학생운동 전반과 연대조직이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누구나 안게 되었고, 일단 한두 단위 학교라도 강화시키 보자, 대중토대를 닦고 보자는 판단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89년까지 경험 속에서 사업 하나 하다보면 조직도 안 남고 간부들만 지치는 경우가 많았기에 나오게 된 생각이었는데, 한편으로 정당하고 현실에 근거한 문제의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운동이 의식화사업, 조직화사업, 투쟁사업 각각의 발전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며 운동이 발전하려면 이 세 영역을 통일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는데 투쟁사업, 특히 실제 여성의 현실을 제기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방도인 서여대협 투쟁사업을 나중의 일로 미루어 놓고 있었다. 결국 기층강화는 골간간부들의 몫이 아니라 각 학교의 몫, 서여대협 집행간부의 몫이 되었고, 그러자 예전과 다르게 의장과 중앙운영위의 책임성과 활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각 학교의 연대의식 역시 사라져갔다. 서여대협이라는 연대조직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어디서나 나왔다.

서여대협의 이러한 모습은 학교 사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층강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은 각 학교의 일, 또는 서여대협 집행간부 몇몇과 나누는 일이 되어버렸다. 연대투쟁이 사라지면서 각 학교에서도 여성문제, 여학생들이 느끼는 여성문제의 해결책을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일밖에는 생각해 내지 못하게 되었다. 취업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예로 들어보면 89년에 사회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했던 것과 그 이후 학내 일에만 머무르고 사회 변화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87년 이후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제 실제로 사회 속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던 단계에서 멈추고 후퇴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의식과 실천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고나 할까.

④92-93년

보은, 진관 석방 운동과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 이 두가지는 92-93년에 여학생회와 서여대

협을 학우들과 조금 더 가까운 조직으로 만든 대중투쟁이었다. 또 이 투쟁은 이전의 투쟁과 달리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92년은 서여대협이 보은, 진관 석방운동을 통해 다시금 활동력을 찾은 해였다. 이 운동을 통해서 서여대협 연대모임이 단위마나 새롭게 시작되고 실천성을 갖게 되었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과 경험도 교류되기 시작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으로부터 여성문제의 현실을 느끼고 그 해결방도를 배우며, 힘을 받으려는 간부들의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92년 사업은 여학생대중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 위협을 실제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해결을 요구하는 힘이 모여 학내의 개선안부터 성폭력특별법 제정-민주정부 수립까지 그 해결방도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여성해방과 우리 사회변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질 지 조금씩 상이 잡혀가기 시작했으며, 대중의 힘을 모으는 일이 조금씩 가능하게 되었다.

90.91년의 대중투쟁에 대한 소극성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여학생운동에서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 사업이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고 여학우 주변의 일, 여학우들의 일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해 나가야 하며, 그리하면 대중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동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93년은 이런 모습이 조금씩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라지기 시작한 첫해이다. 92년의 성과를 이르면서 동시에 골간단위가 주체로 되지 못하는 문제를 93년 해결과제로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최대한 논의, 지도 내용을 학교 상황에 맞게 가져가려고 하고 서로 골간간부로서 책임감을 높이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많았다. 이것이 93년의 가장 큰 성과이다.

93년에는 또한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 현실과 여성의 관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반미자주화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법을 불충분하게나마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서여대협, 서울지역 여학생운동에서 92-93년은 다시 실천력을 확보하고 대중의 힘에 기반한 여성문제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때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층조직화-의식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발전방도를 뚜렷이 내오지 못하고 있고, 대중투쟁의 영역(여성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아직은 넓지 못한다. 골간단위가 실질적인 주체로 서가고 있지만 지구별 편차가 크고 역시 학교사업주체들이 가지는 부담감은 결코 작지 않다 이 남은 문제들은 해결해 나갈 방도를 94년 새로운 주체들과 얼만큼 함께 만들어가고 경험을 이어주고 이어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서울지역 여학생운동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2)서여대협의 필요성과 그 역할

서여대협은 사회 속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보겠다는 실천적 요구로부터 생겨났다. 그리고 7년의 기간 동안 서울지역 각 학교 여학생운동이 실천을 함께 하는 단위로서 역할을 해왔다. 학교별 실정이 그리 양호하지 못하고 편차도 꽤 있기 때문에, 몇 학교만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학교가 참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여대협의 실천은 1년에 한두번의 투쟁사업과 타계급, 계층 여성들과의 연대사업이 되어왔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여학생운동의 실천력과 대중포괄범위를 넓히고 의식화, 조직화의 경험을 교류하는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 서여대협의 역할이었다.

87년 이후 초창기 대중운동이 필요할 때는 일반적인 여성문제 인식과 그를 통한 조직화가 중요했고 또 주류를 이루면서 평측참가투쟁 등 서여대협의 연대투쟁과는 조금 떨어져서라도 학교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90년 이후 여성문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별히 여학우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힘을 모아 해결해 나

가는 경험이 갈수록 필요해진다. 89년 취업차별철폐운동과 같이 대다수 여학우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필요하고 서여대협, 각 학교 총여학생회는 이를 책임지고 해나가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지금 서여대협의 필요성도 바로 이렇게 지나온 7년의 시간, 여학생운동이 걸어온 15년여의 역사에서부터 나온다. 여학생운동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학우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 되고 여학우들이 실천의 힘을 가지려면 서여대협 단위의 통일된 실천력이 필요하다. 기층강화 역시 이런 실천 속에서 대중의 자각이 확산되고 지도단위의 결합력이 높아지면서 모범의 교류폭이 넓어지는 등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다.

93년 사업에서 정리되는 것은 투쟁사업-연대사업을 중심으로 한 서여대협의 실천이 학교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진행되려면 매 사업에서 의식화, 조직화의 방도가 더 깊이 고민되고 경험이 모아지면서 서여대협 각 단위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여대협의 역할은 지금으로서는 많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사업-연대사업을 중심적으로 책임지되 그 안에서 기층의식화,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침을 풍부하게 생산하여 그 시점에서 기층과 중앙의 통일성을 높여나가고 연대모임을 안정화하면 일상적인 의식화-조직화-대중사업 경험을 교류하여 모범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5. 단위조직에 관하여

1)단대 여학생회

①단과대학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단과대학의 여학생회는 학내외에 존재하는 여성모순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 대학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며, 단과대 여학생들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는 여학우들의 대중자치 조직이다. 여학생회는 단과대 여학우들의 선봉에서 여학우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이 자기 삶의 주체, 여성.계급.민족모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학생회의 내용은 성모순을 주로 다루는 것이며 그 대상에는 남녀학우가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여학우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키워주기위한 여학우만의 문화,생활공간도 필요하기는하나 홍보와 교육사업의 대상속에 남학우들을 포함시켜 성모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ㄱ.총여학생회와의 관계

운영위원회-의결과 집행기구로서의 내용성이 갖추어져야한다. 여학생회가 단과대 여학우의 지도조직이라고 할 때에는 학내의 모든 투쟁 방향성, 투쟁일정, 즉 총학생회의 내용을 포함한 총여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의 1학기 방향성과 사업내용을 내오는 주체이며 그 행사에 대한 조직력을 정확하게 담보하여야 한다. 또한 여회가 건설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여회건설을 위한 서로의 도움을 받고 내용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이여야 하겠다.

집행부서별 결합-단과대 여회에서도 집행부가 결성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동시켜 총여학생회 집행부와의 회의를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회부선고, 교육부선의 강화가 필요하다.

ㄴ.단대학생회와의 관계

단대학생회와 여회와의 관계는 서로 동등한 단과대의 대표조직으로서 내용적인 차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에 있어서는 남.녀학우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서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단과대의 전투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운영위원회 참가

집행부장회의 참가

예산의 문제 여학생부-단대학생회의 1개부서임으로 학생회에 예산청구하고 총여에는 사업보조비
여학생회-단대학생회와 함께 중앙예산편성시 독립예산을 따는 것. 사업보조-총여
여학생단대-총여, 총학으로부터 사업보조비

②여학생 단과대와의 관계

여학생 단과대는 여학운의 역할과 학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들어가야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총여학생회의 내용성(교육 투쟁영역)이 담보되었을 때에는, 그리고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단대는 여학생단대이다. 즉 여학생 단대는 그 존재자체가 여학생운동이며 총여학생회와의 관계를 1차적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행부서장이 역분하여(여성부) 총여와의 관계를 맺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부 자체가 고립화, 써클화되면서 집행부전체와 회장단에 대하여 여학운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로 서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장단 내부의 역분속에서 총여와의 관계를 맺고 산하에는 여성학회나 써클이 존재하여 내용성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단대회장단 및 집부장들은 여학운의 내용성을 체화하고 여학운의 주체로서 모든 사업에 여학운의 시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2)과 소모임을 중심으로

①여학생 모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학생모임의 형태

- 과여학생 계모임
- 과여성문제 연구반, 과여성학 소모임, 과여성학회
- 과여학생부
- 과여학생회
- 단대 여회, 단대 소모임
- 총여학생회
-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건)

여기에서는 과여학생소모임을 중심으로 바라보자. 과소모임은 가장 중요한 단위이며 가장 튼튼해야 할 단위이다. 여학생들의 기본 생활단위에서부터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존재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과여학생 계모임

- 의의→ 여학우들에게 자신의 생활과 활동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요구들을 쉽게 일상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기초 대중 조직화 단위.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 개인적.고립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공동주의.집단주의적 기풍을 익힘
- 건설→ 2학년 올라갈때 여학생들의 모임제기 (1년동안의 생활/ 신입생시절 여선배의 모습/ 주체적인 신입생맞이/ 여학우들의 친화력 모색)
- 내용→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영화관람/ 야유회/ 신입생환영회, 졸업생환송회
- 형식→ 1달 1회 모여 반지계 돈걸고 놀고

생일계 생일 차려주고, 주인공에 대한 대화 (사는 얘기, 집안, 연애)

• 성과→ 여학우들의 기본적인 요구- 친목도모 단결의 기본

학번별 여학생 모임의 맹아 창출. 특히 학생회 활동에서 일정정도 소외되고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여학생들이 가지기 쉬웠던 개인적이고 고립분산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같은 학번 여학생들 간의 기초적인 친목과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초 대중조직. 즉, 비슷한 처지와 정서를 한 모습으로 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갖는 여학생들이 서로간의 친목과 신뢰를 기본으로 자연스럽게 단합을 이뤄내며 학생회 내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

• 문제→ 깊이있는 이야기, 공동의 문제 중-풀지 못한 것

일상사업의 강화

소식지와의 결합-소식지의 발간은 산만하기 쉬운 모임진행에 집중점을 가져오며,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일상사업이 된다.

학번간 여학생들의 자매 맺기 또는 후배챙겨주기 운동-과 학우들 사이에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져 나가기 쉬운 선배 여학우들의 역할을 보장해내고 과내 단결.단합의 기운을 높일 수 있다.

3,4학년 계모임에서는 각자 수집한 취업정보를 교환하고. 취업차별 문제에대한 간단한 토론들을 벌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과 여성문제 연구모임 (과여성학소모임, 과여성학회)

• 성격→ 여성문제를 역사적, 구조적,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양산해내는 단위. 여학생학회의 활동을 통해 여학생 운동의 주체를 내요게 되는 것이다.

• 건설→ 주변에서 여성으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의식 제기, 인식을 높이자(총여와의 연결~)

예) 생일축하 때, 에피소드

• 내용→ 여학우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생활, 활동, 삶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소재들을 기본으로하면서 점차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인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과 흡연/ 올바른 연애관/ 대중매체와 여성/ 탁아소가 필요한가?/ 보은 진관사건/ 정신대문제/ 기지촌문제/ 시기, 정세-주제별 토론

• 형식→ 주별 모임

토론 내용의 대자보화 작업-많은 학우들과 인식의 변화를 이루고,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회원들의 토론.학습내용을 대자보로 선전

참관인 제도와 공개 토론회-대중적인 주제로 비학회원들까지 참여하여 토론을 벌임.

그리고 그동안 학회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성과물들을 정리, 자료집을 발간

'여성학교'내용을 학회가 준비, 강좌를 여학회의 주제발표회로 가져가는 것

탁아, 두레방,정신대 후원회

• 성과→ 여학생 조직의 건설 과정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여학생들을 단련하여 여학생 운동 핵심 주체들을 발굴하는 단위로 자리매김되기 시작.

학회의 교양 내용에 있어서 예전의 학회가 흔히 보이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학습 위주가 아니라, 많은 여학생들이 생활과 활동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소재점들을 자기 내

용으로 하는 교양내용의 혁신을 이룸. 여성문제에서 삶의 문제 제기-인식을 통한 실천 모색

• 문제→ 소수 인식과 실천, 좀더 많은 여학우들의 공유에서 남학우들까지도 더해야
⇒탁아 소모임/ 두레방/ 정신대후원회→인식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다양한 학회의 일상 사업들이 학회원들과 학우들과의 생활적 결합 속에서 적극 모색, 발굴되어져야한다. 다음으로는, 학회 교양 내용의 생산과 대중교양 주제에 대한 교사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가져왔던 대중교양주체들에 대한 관점 견해등을 정리한 교사안을 마련하고 학회 교양 내용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모임에 따라 과내, 총여내, 동아리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

†여학생부
• 건설→ 과내 여학우들을 위한 사업을 여학우주체가 문제로 의식하여 과학생회체계로 수렴. 과학생회 발굴속에서 주체를 내온다.
• 내용→ 간담회/ 5월 카네이션 판매/ 과행사 주제발표/ 총여 체육대회/ 신입, 졸업생환송회
• 형식→ 여학생부장, 학년별 여대표모임 꾸림/ 단대 여회와 총여운위 과여학생대표로 참가
• 성과→ 여학우들의 요구를 제기,수렴해서 다양한 사업 모색
• 문제→ 집행부로 가지는 한계(여학우들의 의사수렴-실천의 한계: 책임성 떨어짐)

†여학생회
• 건설→ 여학우들의 공동이익 실현하는 여학우들의 조직
(84년 이후 여학생 주체발굴 가속)
여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색이 많이 나옴
• 내용→ 총회-선거/ 공개토론회/ 신입,졸업../과행사-단대여회-총여행사/ 소모임-여성학, 탁아
• 형식→ 회장-학년여학생대표로 운위
총무-회장과 다양한 사업 모색, 회비 관리
• 성과→ 여학생모임의 최상-공공이익-인식 실천-여학우들의 조직
• 문제→ 실천적인 여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여회인자 발굴(~여회 인자 단련)

"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한 여학생회의 건설, 철저한 민주적 운영에의한 조직의 운영, 참된 사상성과 함께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힌 간부의 준비가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제이다"

②여학생모임의 필요성

여학생모임은 낮은 친목의 요구로부터 여성문제를 인식, 실천하고 스스로 모임을 운영하는 높은 수준의 요구까지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모임이며 조직이다. 이러한 여학생모임은 왜 필요한가?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는 데 반해 스스로의 요구가 실현되고 주인이 되는 삶의 의미로 깨달아 나가는 조직(부녀회, 노조, 학생회와 같은)이 여학우들의 주변에 있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조직이 여학생모임이다.

-친목~(삶, 연애, 집안일, 건강...)

-인식~실천(화장실문제, 휴게실문제, 탁아문제, 기지촌문제, 5.9투쟁, 성폭력..)
-여학우들 스스로 운영
-실현

③모임의 건설과 정착
†여학생 모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 모임주체의 요구를 명확히 하자
-무엇을 하려하는가? 친목, 인식, 실천, 운영
• 모임주체의 단련, 요구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가?
-총여의 도움, 요구 실현을 위한 친목~ 모임운영, 인식-실천, 공부/ 스스로 상을 잡아야
예)여회 건설, 여학회 건설
• 1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첫단추를 잘 끼워야)
-다양한 접근 모색(계기를 잘 포착):성폭력, 화장실문제, 신입생 사업....
-공개적인 참여 모색:자보화, 개별접촉
예)엽서쓰기-의의, 내용 반드시 숙지하도록
• 이후 모임에 대한 제기-평가와 뒷풀이
• 준비주체들의 평가, 이후 전망
-주체발굴.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 모임의 공개화
• 모임의 안정화-여회로 정착하자
-계속적인 모임의 내용을 잘 잡자!
-요구 수렴, 과-단대여회-총여와의 결합 모색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여학우들의 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해
• 여학우들의 조직으로(운영과 관리)
• 인자발굴을 위해...인식과 실천, 체계의 지속적 모색
---과학생회와의 관계
• 과학생회 일꾼들의 고민-여학생모임 잘 모르겠다
• 여학생 모임의 폐쇄성
• 여학생 모임이 과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단대여회, 총여와의 관계
• 과여학생 소모임의 다양한 사례공유, 틀거리/ 주체를 세우기 위한 고민과 주체의 단련
• 다양한 사업 고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직적 관계를 만들자!

6. 조직운동에서 드는 문제의식과 과제

☞문제의식 1)단위 핵심간부(주로 운영위)들이 튼튼하지 않다.

각 학교마다 학내 여학운을 중심적으로 끌어가는 핵심 단위가 있다. 이 핵심단위는 바로 기층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중앙운영위가 될 것이다. 학교마다 일정 정도 차별성이 존재하겠지만 단위가 천차만별이거나 부재하는 경우에도 운영위 형태의 정형은 아니더라도 일단 핵심일꾼을 파악하여 교양, 학습의 장과 회의논의 구조를 안착화해 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적으로 학내 여학운을 고민하고 편차가 심한 단위들의 통일성에 대한 구체적 방도를 내오자.

조사연구 과제 1) 단위 핵심간부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기층 여학우모임주체와 여부장, 소모임 주체까지 대강의 학내 여학생운동의 수준을 파악해 보자.

☞문제의식 2)간부들이 단련받고 힘을 얻을 계기와 장이 필요하다.

여학생회 사업속에서 다양하게 많은 일상사업이 벌어지는 반면 간부들을 강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장이 부족하다. 여학운을 하는 간부들은 생활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힘들어한다. 이것은 여회활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고민되고 방향을 내오기 보다는 고민이 개별화되고 학생회사업속에서도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학생운동이 변화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여학생운동의 흐름을 고민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런 계기와 장을 통해 여학운에 대한 확고한 신심속에 재생산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조사연구과제 2) 학내에 여학운을 하는 간부들이 모이는 계기와 장이 얼마나 있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지 조사해 보자.

☞문제의식 3)회와 부 체계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데 비해 그 정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총여학생회나 단대여학생회는 명실공히 회 체계로 존재하지만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고 여학생회 활동의 분명한 목표와 지행을 명시하고 있는 회칙이 부재하다.

특히 단대 여학생회는 거의 정형화된 회칙이 없다. 때문에 예산문제 같은 경우 단대학생회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각 학교전학대회와 같이 직선간부들이 의결권을 가진 회체계에서 단대 여학생회장은 대표성만을 인정하고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비단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부장, 단대여회장의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단대여회가 지도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상하층의 통일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금 여학생운동에 맞는 회,부 체계의 정형을 세우고 회 체계는 지향과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회칙을 세우도록 하자.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형식의 문제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회 일꾼들의 질을 높이고 여학생운동의 자립, 자활력을 갖게하는 토대이다.

조사연구과제 3) 각 학교 총학생회 회칙을 먼저 조사하고 총여학생회 회칙과 단대 여학생회 회칙을 조사해보자.

전학대회에서 단대여학생회 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조사해보자. 회,부체계에 대한 정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단위에서 토론하고 구체적 상을 제시해보자.

☞**문제의식 4)여성학 소모임의 분명한 방향이 없다.**

여학생운동에 있어 의식화의 주된 장을 이루는 것이 여성학 소모임이다. 그러나 여성학 소모임 또한 통일적 지향을 갖지 못한 것은 학술부장이 모일 수 있는 장의 부재와 연석회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모임 일꾼과 학술 일꾼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통일적 지향을 모아보자.

조사연구과제 4) 학내 여성학 소모임의 수준과 형태를 조사해보자.

☞**문제의식 5)총여학생회 집행부 체계와 단대 여회, 여부의 골간 집행부 체계의 통일성이 없다.**

예를 들어, 총여에는 생활문화부가, 단대여회에는 생활선전부가 존재해 상하층의 통일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여학생운동이 재생산의 구조를 갖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고유 영역을 갖지 못하면 그만큼 소명의식과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흐름속에서 필요한 집행부서로 혁신해 내고 가능한 수준에서 상하층의 통일을 볼 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 내자. 단대 집행부서가 확실히 서고 현실적으로 부서 체계의 통일이 어렵다면 이후 여학생회 체계에서 혁신해 낼 수 있도록 준비하자.

조사연구과제 5) 단대 여회 집행부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하자.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흐름속에서 필요한 부서가 무엇이고 혁신해야할 부서가 무엇인지 조사, 연구하자.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대중운동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대중이 주인주체가 되어 사상운동을 체화하는 것이다. 대중운동은 학우들의 자주적 단결을 부단히 높여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대중운동은 사상운동과 조직운동에 대한 총화라고 할 수 있다.

대중운동에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될 편향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다고 하여 전혀 지도의 내용이 없이 이른바 대중추수주의적 모습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학운 속의 대중활동의 사업작풍을 평가해보고 전망을 내오도록 하자.

·여학우가 주인주체로 서는 대중사업

여학운 대중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학우가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여회가 주관한 신입생사업의 경우 동부지구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중사업은 단지 많은 학우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여학우들이 변화의 계기를 갖는 것이다. 즉 대중사업이 바로 여학우대중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중사업을 통해 여학우들이 살아있는 체험과 감동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학우들이 주인되는 대중사업, 여학우들이 진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대중사업을 벌여내자!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대중사업

여학생회 사업은 여학우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폭로하는 사업이 많다. 가령 여학우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성폭력, 상차별 문화들을 집단화하여 문제의식을 갖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만하는 자족적인 대중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앞서 말했듯이 여학운은 여성이라는 존재적 특수성에 기반한 운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체화할 수 있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은 문제라도 우리 여학우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대중사업을 하자.

·중심적 사상흐름을 갖는 대중운동

여학생회 사업은 어느 단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어느 단위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만큼 조직이 강화되고 사람이 남지 못하는 것은 중심흐름을 움켜쥐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해의 대중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그 해 전체 정세분석과 단위 여학운의 수준, 그리고 변화된 여학우들의 지향과 요구를 바탕으로 그 해 여학운의 사상적 흐름을 먼저 모아 보자.